

한국 골프남매 '굿샷'

PGA AT&T내셔널, 앤서니 김 1R 8언더 선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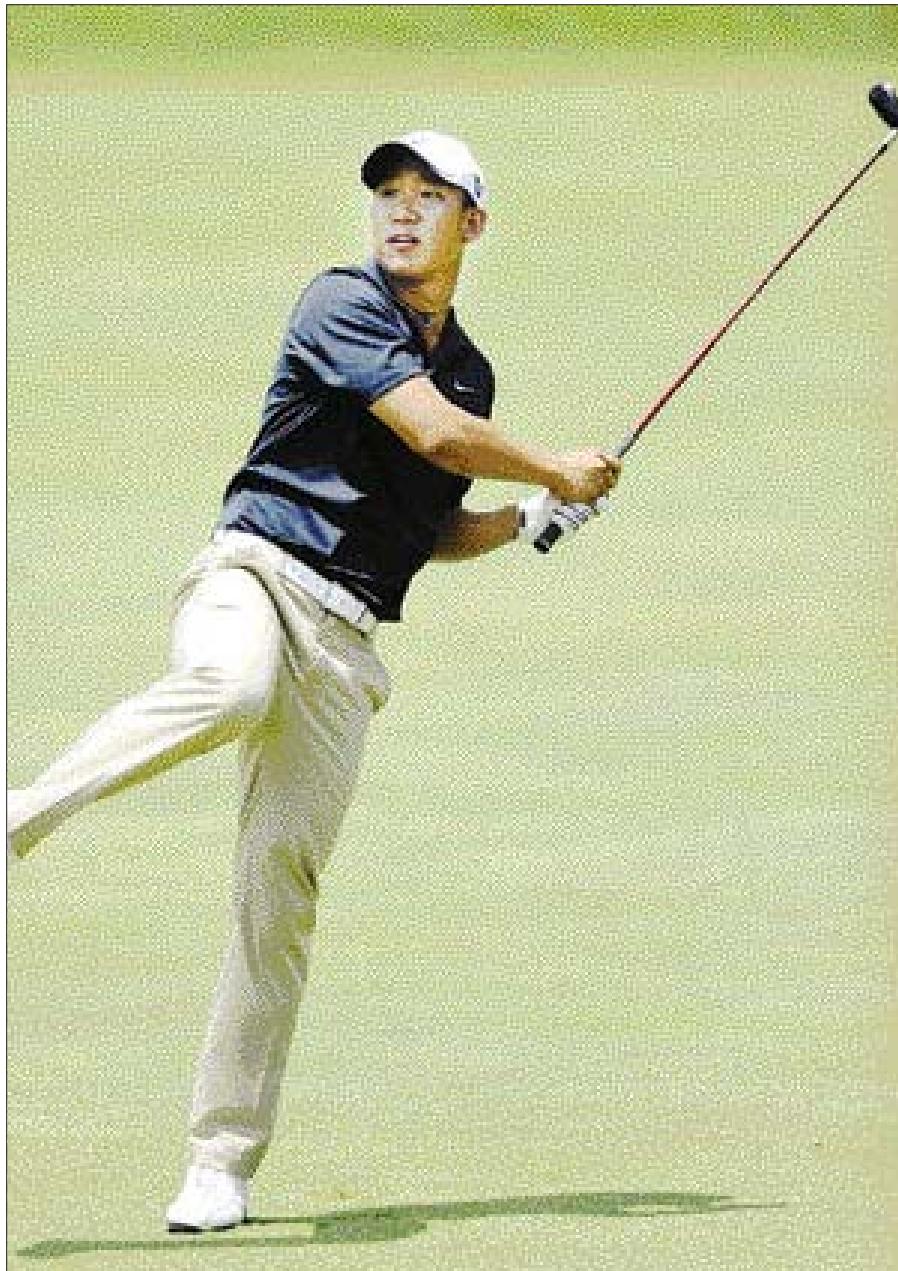
제미교포 앤서니 김(24·나이키골프)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AT&T내셔널에서 타이틀 방어에 청신호를 켰다.

앤서니 김은 3일(한국시간) 미국 메릴랜드주 베데스다의 콩그레셔널 골프장(파70·7천255야드)에서 열린 대회 1라운드에서 보기없이 8언더파 62타를 때려 코스레코드를 세우며 단독 선두로 나섰다.

작년 이 대회에서 우승하며 코스와 함께 궁합을 보여줬던 앤서니 김은 US오픈 때 원쪽 얹기 부상을 말끔히 털어내고 올 시즌 첫 우승을 향한 발판을 마련했다.

298야드에 이르는 티샷은 71%의 페어웨이 안착률을 기록했고 그린 적중률 94%의 이르는 아이언샷은 절정이었다.

/연합뉴스



LPGA 투어 코닝클래식, 첫날부터 5명이 '탑10'

한국 선수들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제이미 파 오웬스 코닝 클래식 1라운드에서 대거 상위권에 올랐다.

김송희(21)는 3일(한국시간) 미국 오하이오주 실베이니아 하일랜드 메도우스 골프장(파71·6천428야드)에서 열린 대회 첫날 1라운드에서 버디를 9개나 뽑아내고 보기는 2개로 막아 7언더파 64타를 기록했다. 로라 디아스, 모건 프레슬(이상 미국)과 함께 공동 선두에 오른 김송희는 2007년 투어 데뷔 이후 첫 우승의 꿈을 부풀리게 됐다.

김송희는 지난해 코로나 웹파인십과 삼성월드챔피언십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것이 개

인 최고 성적이다. 1번홀(파4) 보기로 불안한 출발을 보인 김송희는 4번홀(파4)부터 4연속 버디, 11번홀(파4)부터 3연속 버디 등 몰아치기로 타수를 줄여 리더보드 맨 위에 이름을 올렸다.

위성미(20·나이키골프)도 버디 7개와 보기 1개로 6언더파 65타를 쳐 공동 선두와 1타 차 공동 4위로 1라운드를 마쳤다. 65타는 위성미가 올해 LPGA 투어 회원이 되고 나서 자신의 한 라운드 최저타 기록이다. 위성미와 함께 공동 4위에 오른 수잔 폐테르센(노르웨이)은 154야드 2번홀(파3)에서 7번 아이언으로 훌륭한 샷을 했다.

앤서니 김이 10일(한국시간) 열린 PGA 투어 AT&T내셔널 1라운드 9번 홀에서 샷을 한 후 중심을 잊고 있다. /연합뉴스

고흥 '노인들의 체육 큰 잔치' 성료

여수, 게이트볼·탁구 우승

▲2009 K리그<수원 : 성남>(20 : 30·MBC ESPN) <부산 : 서울>(20 : 30·KBS n 스포츠)

4일(토)

▲제6회 KBC 남녀골프대회(13 : 55·KBC)

▲2009 일본프로야구<요미우리 : 주니치>(13 : 50·SBS스포츠)

5일(일)

▲2009 프로야구(SK : 롯데)>(16 : 40·KBS n 스포츠) <기아 : 한화>(16 : 45·Xports) <하이로즈 : 삼성>(16 : 50·MBC ESPN) <두산 : LG>(17 : 00·SBS스포츠)

▲2009 월드컵 테니스 남자단식 결승(21 : 30·MBC ESPN)



승의 기쁨을 누렸다.

한편 건강상은 김용순(88·여수)·김대규(87)·문동열(83·이상 보성)·장영수(83·고흥)·위승환(83·순천)·김문오(81·목포)·김재익(81·구례)·김병희(78·광양)씨에게 각각 수여됐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메달밭' 태권도 금 3 기염

한국 남여 단체전 우승…이기성 개인전도 1위 2관왕



한국이 제25회 베오그라드 하계 유니버시아드에서 '메달밭' 태권도에서의 선전으로 하루 동안 금메달 3개를 수확했다. 한국 대표팀의 이기성(22·한국체대)은 대회 이틀째인 3일(한국시간) 오전 베오그라드 페어홀에서 열린 태권도 품새 남자 개인전에 출전, 첫 금메달을 따냈다.

이기성은 이상복, 지호용과 함께 출전한

단체전에서도 우승, 대회 2관왕이 됐다. 황초룡, 안진영, 이한나로 구성된 여자팀은 단체전에서 중국을 누르고 시상대 가장 높은 곳에 섰다. 그러나 여자 개인과 남녀 혼성 부문에서 한국은 각각 스페인에 1위 자리 를 내줬다. 한국 여성 선수 라우라 김(26)은 두 종목 모두를 힘쓸어 스페인에 금메달 두 개를 안겼다. 태권도의 각종 동작을 연기하는 종목인 품새는 이번 대회 처음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으며 남녀 개인·단체 및 혼성에 5개의 금메달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광주선 '멀리뛰기'·전남선 '투척'

육상 종목별 지역대회 열어

2011년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눈앞에 둔 한국육상이 '지역별 거점대회'로 붐 조성에 나선다.

대한육상경기연맹은 4.5일 부산의 명소 용두산공원에서 열리는 부산골든풀 장대높이뛰기대회를 시작으로 지역마다 특색을 살린 새로운 개념의 종목별 육상대회를 열기로 했다. 멀리뛰기, 세단뛰기 등 도약종목 대회는 빛고을을 광주에서 열린다.

광주 출신으로 현재 국내 육상선수로는 유일하게 세계 레이스에 출전하는 세단뛰기 1인자 김덕현(광주시청)과 전남 출신인 여자

멀리뛰기 에이스 정순호(안동시청)가 열려 있다. 전남체고가 경기장을 제공한다. /연합뉴스

생활 게시판

화축

▲박규선·유근자씨 장남 홍진군 이동희·니현옥씨 장녀 보리양=11일(토) 오후 1시 서울 건설회관 2층 웨딩홀(씨작)

▲주영순(목포상공회의소 회장·민주평생전남부의장)·김애자씨 차남 성현군 정승학(서울 광진구청장)·정남임씨 장녀 진주양=11일(토) 오후 5시 서울 삼성동 웨딩의전당 1층(그랜드볼룸), 피로연 4일(토) 오전 11시30분 목포신안비치호텔 2층.

부음

▲최남수씨 별세 규선·규례·지원·경미·영·경아씨 부친상=발인 5일(일)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제 1분향소, 062-231-8901.

▲윤자철씨 별세 남정·복순씨 부친상

=발인 5일(일) 주월동 나라장례식장 202호, 062-670-4444.

▲송한문씨 별세 관·경식(광주고등법원)·준식·정자씨 부친상=발인 4일(토)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제2분향소, 062-231-8902.

▲김문자씨 별세 호근·창근·영근·봉식·생금·선자·소자·길연씨 모친상=4일(토) 무등장례식장 201호, 062-515-4488.

▲왕창만씨 별세 경태·진태·금옥씨 부친상=발인 4일(토) 무등장례식장 203호, 062-515-4488.

▲정태구씨 별세 만종·만필·상희·영신씨 부친상=발인 4일(토) 학동 금호장례식장 402호, 062-227-4000.

▲유재열 별세 남석(한법재판소 수석부장연구관)·대석(조선이공대교수)·우석(레노마 대표이사)씨부친상, 이승호(금호타이어 연구소 수석연구원) 빙부상=발인 6일 오전 10시 목포 종암병원 장례식장, 061-271-4444.

한국여자 디센타루, 옥션디펜, 디센트크
전화: 417-6021-2 / 1588-0766



별박지기와 함께 만나는 패미리고
별난 신개념 과학놀이터

2009. 6. 19(금) ~ 8. 23(일)
김대중컨벤션센터 1전시장

상상해
별난 물건 박물관

여러 신나는 별난 물건 체험 광주 특별전

* 체험을 하는 모든 회원에게 체험券을 드립니다.